

2010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1. 04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Ⅲ. 2010년 4분기 콘텐츠산업 주요 이슈

6. 광고산업 주요 이슈

□ 국내동향

- 2010년 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하반기 방송 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는 광고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
 - 종편채널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민영 미디어랩 도입,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 간접 및 가상광고 확대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 대형 광고기획사에 유리한 반면 중소형 업체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우려도 일부 있음
- 2010년 광고시장은 09년에 비해 16.5% 성장한 8조4501억원을 기록했다고 제일기획이 밝혔다. 2011년 광고 시장은 1.5~3.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 매체별 광고 성장률은 인터넷 24.5%, 케이블TV 23.8%, 옥외광고 19.9%로 인터넷 광고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제일기획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부진하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없고 중국 경제 또한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광고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민영 미디어랩(광고판매 대행회사) 도입으로 광고시장에 경쟁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 광고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
 - 2010년 11월 현재 정기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미디어랩 도입 법률안이 논의 중

- 그러나 민영미디어랩 제도 시행시 경쟁 심화와 더불어 대형 광고업체와 중소형 광고업체 간 격차가 커져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밝힌 민영 미디어랩 도입 마련 시한이 지나 향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 2010년 9월 6일부터 다음과 네이버가 모바일 포털에서 키워드 광고를 시작함 그동안 구글 애드센스, 다음 프리미어 링크, NHN의 파워링크 등 키워드 광고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업체가 모바일로 확장시킴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 증가와 더불어 모바일 광고시장이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인터넷 광고방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모바일 광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모바일의 특징인 즉시성을 활용하는 위치정보 기반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광고방식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09년 온라인 광고시장은 1조 5619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14.7%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2010년 들어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광고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광고업계에 새로운 트렌드 형성
 -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증강현실을 구현한 위치기반광고, 개인맞춤형 광고, 애플리케이션 기반 광고 등 모바일 특유의 광고방식이 속속 개발
 - ※ 국내에서는 KT가 구글 애드몹과 손을 잡고 모바일 광고시장에 진입 정부는 2010년 3월 “모바일광고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구체적, 다각적 지원을 위한 논의 진행
- 국내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광고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
 - 페이스북이 2010년 1분기 배너 광고 매출에서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러 광고에서도 소셜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킴
 - 2010년 1분기 배너 광고 건수는 페이스북 1763억 건, 야후 1361억 건, 마이크로소프트 602억 건

- 국내 소셜네트워크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국내에서도 점차 확대될 전망
- 3D 영화관, TV, 방송 등 3D 인프라 구성과 여건 성숙에 따라 광고산업 또한 3D 입체광고 제작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3D 광고는 기존 광고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며 광고 크리에이터 또한 기존 광고로 구현이 불가능했던 방식의 접근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창조적인 형태의 광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
 - ※ 삼성전자는 2010년 2월 세계 최초로 출시한 3D LED TV에 대한 광고를 3D 영화관에서 시현

□ 해외동향

- 2010년 11월 18일 인터넷광고업단체 IAB가 '10년 3분기 미국의 온라인 광고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힘
 - IAB에 의하면 '10년 3분기 미국의 인터넷 광고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7% 늘어난 64억 달러를 기록함. '10년 1분기 59억 달러를 뛰어넘은 최고 기록임
 - IAB는 올해 온라인 광고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 중국, 인도, 남미 등 기존 신흥시장에 이어 아프리카가 새로운 광고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프리카의 경제 호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광고업체의 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 경기침체로 유럽의 광고 매출이 줄면서 퍼블리시스, WPP, 옴니콤 등 글로벌 광고업체들이 아프리카 광고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함
 - 물론 정치적, 경제적 불안 등 아프리카 시장의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진 못했지만 성장성 등 주목할 만한 점이 많음

- 2010년 4월초 애플이 발표한 새로운 운영체제 iOS 4.0에 모바일 광고 기능인 iAD가 추가되었음
 - 애플은 2010년 초 온라인 광고 업체 '퀴트로 와이어리스'를 인수해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진출 의지를 나타냄
 - 발표 행사에서 스티브 잡스는 토이스토리3에 적용한 iAD 광고기능을 시연 하기도 했으며 "구글의 검색 기반 광고는 모바일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주장 했으며 또한 "모바일 유저들은 검색 엔진보다는 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필요한 콘텐츠를 선택하므로 광고 역시 예전과 달라야한다"고 말함
 - 구글 애드몹에 이어 애플의 도전으로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전망